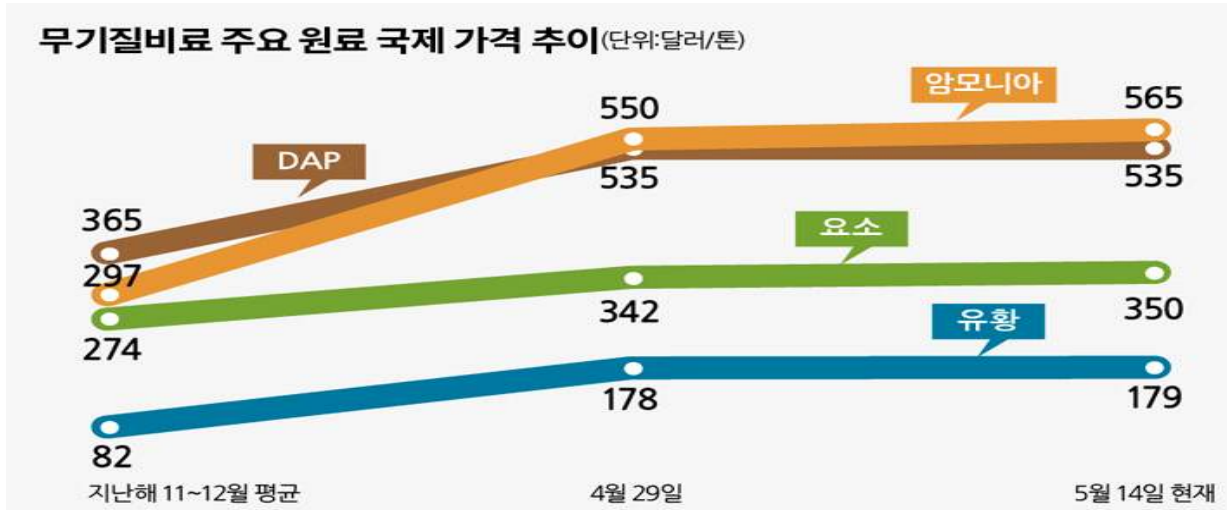


# 농정 동향/주요 이슈

2021. 5. 26.(수)

## ■ ( 언론 동향 ) 2021.5.25. “한국농어민신문” 보도내용

○ “국제 원자재 가격 천정부지...무기질비료 농협 납품가 조정해야”



무기질비료 업계가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가격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요소·암모니아·염화칼륨 등 올해 초부터 급등세 장기화  
 농협 계약 단가 조정은 없어 영업손실 500억~600억 불가피  
 업계, 농협에 대책마련 촉구... 협상 결렬 땀 ‘납품 거부’할 수도

무기질비료의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세가 장기화되고 있다. 최근 무기질비료업계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농협 무기질비료 납품가격 조정’을 농협중앙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무기질비료 국제 원자재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고 있다. 올해 초 평균 30% 이상 올랐던 가격의 그래프가 여전히 위를 향하고 있다. 4월 29일 기준 요소 가격은 342달러(1톤)로 지난해 11~12월 평균 274달러보다 25% 올랐다. 이는 인도의 요소 대규모 입찰을 앞두고 수급이 불안정해진 데다, 해상운임도 약 3% 상승한 결과다. 암모니아 가격도 국제 수요가 증가한

회원사 : 남해화학(주) · (주)조비 · (주)카프로 · (주)팜한농 · (주)풍농 · (주)한국협화 · (주)세기  
 한국비료협회(www.fert-kfia.or.kr) ☎ 02-552-2811~2 FAX : 02-552-2814

가운데 중동지역 등의 암모니아 공장 가동이 중단되면서 지난해 11~12월 평균 297달러 대비 85%가 상승한 550달러를 기록했다. 암모니아 가격은 DAP(인산암모늄) 가격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535달러(4월 29일)로 365달러(지난해 11~12월 평균)보다 47%나 급등했다. 염화칼륨은 283달러로 지난해 11~12월 평균 235달러와 비교해 20% 증가했다. 유행가격은 82달러에서 178달러로 인상폭이 117%에 이른다.

5월 14일 현재 요소는 350달러, 암모니아는 565달러, 유행은 179달러로 또다시 올랐으며, 염화칼륨은 국제 염화칼륨 생산업체들이 아시아보다 남미로 공급량을 늘리고 있어 5월 이후에는 국내 원료조달이 어려워짐에 따라 가격이 더욱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DAP는 535달러로 유지되고 있다.

이처럼 국제 원자재 가격 오름세가 계속되면서 무기질비료업계에선 무기질비료 농협 납품 가격을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있다. 무기질비료업계는 “농협의 구매납품 계약서 제3조인 ‘계약 후 90일 경과 후 계약단가  $\pm 3\%$  이상 변동시 계약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에 따라 올해 초부터 계속되고 있는 원자재 가격 급등에 대한 구매납품 단가 조정이 조기에 이뤄지지 않을 경우 비료업계는 500억~600억원의 영업손실이 불가피하고 경영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최근에는 전국 화학노동조합연맹 전국비료연합(남해화학노조·풍농노조·조비노조·팜한농노조·한국협화노조·KG케미칼노조)이 무기질비료 원료가격 급등에 따른 계약단가 조정을 촉구하는 문서를 농협중앙회에 제출하는가 하면, ‘농협은 비료공급 계약조건 즉시 이행하라’, ‘농협중앙회는 비료사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등의 현수막을 내걸면서 무기질비료 경영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행보에 나서고 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농협의 공식적인 의견은 아직 없다.

전국비료연합 관계자는 “비료를 판매하면 손해를 보는 구조가 수년 전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상 이상으로 오르면서 손해의 폭이 그 어느 때보다 커져가고 있다”며 “농협중앙회와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보고, 만약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조만간 집회는 물론, 최후의 수단으로 비료 납품 거부를 추진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농업인과 상생하면서 성장해온 무기질비료 생산업체들이 이런 결단까지 고민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현실이 어렵다는 의미”라며 “무기질비료업계가 회생할 수 있는 길을 충분히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 조영규 기자 >

# 농정 동향/주요 이슈

2021. 5. 26.(수)

## ■ ( 언론 동향 ) 2021.5.26. “농민신문” 보도내용

### ○ 국제 곡물가 치솟아...농가, 사료값 상승 걱정

국제 곡물가 상승에 따른 사료값 추가 인상 우려로 농가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사료업계에 따르면 국제 곡물가격은 지난해 9월부터 오르기 시작해 올들어 2012년 이후 최고치를 연신 경신하고 있다.

특히 옥수수는 지난해 평균 구매단가가 t당 약 200달러였지만 올 9월 도착예정분 시세는 320~330달러까지 치솟은 상황이다.

소맥도 지난해 t당 200달러에서 올 7월 도착분 시세는 310달러로 40% 이상 폭등했다.

배합사료는 이러한 곡물가격 인상 여파로 지난 3월 이미 가격 인상이 이뤄졌다.

이런 가운데 국제 곡물가 고공행진으로 사료값 추가 인상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김지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농업관측팀장은 “배 운송기간 등에 따라 3~8개월 전 세계 곡물시장 선물가격이 현재의 수입단가가 된다”면서 “지난 8개월가량 국제 곡물가가 상승곡선을 그린 만큼 3분기까지는 국내 사료업계가 오른 가격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료업계 한 관계자도 “미국·브라질 등 주요 곡물 생산국의 작황이 나빠 원료곡값이 추가로 오르면 경영난에 처한 업체들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 축산관련단체협의회 관계자는 “축산업 전체 생산비 가운데 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40~60%”라면서 “정부 등이 사료값 인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재욱 기자 >